

# 하루만에 영호남·충청 KTX 타고 767km 강행군

**문 대통령, 수해지역 방문**  
**열차 도시락에 의존 최소화**  
**"누 될까봐 그동안 못왔다"**  
**구례 지붕위 이틀 버틴 압소**  
**송아지 출산에 "큰 희망 상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충남 천안시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복구 활동에 최대한 누를 끼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의전을 최소화하고 전용차가 아닌 KTX를 타고 이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급 이상은 이번 일정 수행에서 제외됐다. 비서관급 최소 인원만 수행한 의전파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영남과 호남, 충청을 하루에 다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하루 이동 거리만 767km에 달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귀경 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 이상 이동하는 강행군"이라며 "시간을 아끼고자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첫 방문지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였다. 문 대통령은 시장 점포들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동안 오지 못했

다"며 위로를 건네고, 한 식당 주인이 "상인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자 손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화개장터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다. 온 국민이 화개장터의 피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39사단이 지원군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39사단 출신"이라고 해 현장에서 짧은 웃음도 나왔다.

이곳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이정훈 경남도의원도 현장을 찾았으나 간담회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현장 인원 최소화에 따라 경남도지사도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례군 5일 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문 대통령은 "침수 피해로 주민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헤아려진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참 다행"이라며 "대통령의 방문으로 피해 지원이 더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폐사된 가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가축을 키우는 분들의 마음이 참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이 "자식이 죽어가는 심정"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이 간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 이틀간 버티다 구출돼 유명해진 압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김부겸(가운데),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 상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큰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병천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피해 상황 등도 보고 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7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으로, 막대한 폭우 피해를 입은 곳 중 한 곳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 여야 전남·전북 수해 복구 구슬땀... 호남민심 구애

**민주당 전대 후보들 총출동**  
**통합당 구례·하동서 복구작업**

여야가 호남에서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12일 선거운동을 잠시 뒤로하고 전남과 전북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서 봉사활동을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구례와 하동 수해현장까지 방문했다.

금지면은 섬진강 뚝 붕괴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이번 집중호우로 커다란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다. 후보자들은 이날 주남원시장의 브리핑을 청취한 후 마스크와 목장갑을 끼고 일제히 복구를 시작했다. 토사로 뒤덮인 집에서 가재도구와 가구

를 꺼내는 작업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보자들은 모두 땀 범벅이 됐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원시는 지난 주 발표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일 이내로 추가 선포가 있을 것"이라며 "남원시 전체가 포함되거나, 피해가 심한 면 몇 개라도 재난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주남원시장에게 "입시주택 단계를 빨리 진행하도록 정부를 독촉하겠다"며 "이재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수해까지 더해진 아픔을 국민이 함께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호우피해 관련 추가경정 예산(추경) 논의 속도를 빨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계기로 그동안 소홀했던 호남 지역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2일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을 차례로 찾아 수해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예고없이 깜짝 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이 지역을 찾았다. 통합당은 또 13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간담회 일정을 미루고, 대신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뒤 취재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 화폭 속 수해 현실로... 복구에 모든 힘 보태야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4) 홍수

50일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 아니 한반도가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났다. 정말 살면서 이런 처참한 홍수는 처음인 것 같다.

비만 내렸다 하면 큰물이 나던 초등 학교 시절, 등교하다가 새로 산 신발 한 짝이 큰 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을 끝으로 홍수는 남의 일이라니 했는데 퇴근길 침수로 이리저리 돌아서 겨우 귀가하는 날이 올 줄이야. 예전에는 하수도나 배수시설 등 수자원 관리 등이 미

비해서 그랬겠지만 요즘처럼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정도로 발달한 문명의 첨단 시대에 이런 재해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현재 해남 임하도에서 작업하고 있는 최석운작가(1960~ )의 '잠마' (1991년 작)는 최근 뉴스에서 본 듯한 장면이 연상되는 작품이다. 벌써 20여 년 전에 제작한 작품이라 "그 때는 그랬었구나"할 정도로 오래 전 시절의 안타까운 수해 현장을 화폭에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풍경이 되었으니 씁쓸하고 안타깝다. 더구나 물난리로 인한 침수현상이 먹고 살기 힘든 곳에 더 집중되어서 궁핍한 살인속 왜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많은지 아슬하기만 하다.

물속에 잠겨 지붕만 겨우 보이는 집채, 지붕 위의 냉장고와 헬리콥터에서 내려주는 구명 사다리라 그것을 잡으려는 사람의 필사적인 몸짓, 가재도구 하



최석운 작 '잠마'

나라도 더 건지려는 안간힘 등이 눈물겹다. 거의 꼭대기까지 차올라 잠기기 일보 직전인 전봇대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돼지의 모습은 얼마 전 TV 뉴스에서 본 지붕 위로 피신해있던 소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겹쳐진다.

'불 난 끝은 있어도 물 난 끝은 없다'는 속담처럼 수해를 당하여 모조리 물에 씻겨 내려간 집터를 보면 이재민의 마음이 전해져 저절로 망연자실해진다. 지금이 아말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복구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광주서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모행사 1주일간 평화주간 지정 시민 평화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8·23)를 맞아 광주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김대중 광주추모사업회'는 김 전 대통령 일본 도쿄 납치 사건의 생환 일인 13일부터 서거일인 23일까지 1주일간 '김대중 평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시민 평화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추모제와 아카이브 기록전, 학술전, 특별강연, 토크 콘서트, 포럼 등이 열리는 등 김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

평화의 삶을 재조명한다. 13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시회, 학술행사, 특별강연, 추모식, 추모음악회 등이 열린다. 14일엔 광주YMCA에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생을 위한 김대중 햇볕정책의 비전'을 주제로 학술행사와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또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방승인 김제동 씨, 역사 강사로 유명한 최태성 씨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어 17일엔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보편과 세계의 눈으로 본 5·18과 김대중'을 주제로 민주인권평화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박명립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이 온라인 대담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추모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린다.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는 추모공간이 마련돼 추모객을 맞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신세계안과

## 안과전문의

###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